

# 우리카드 썼는데, 롯데 포인트가 적립된다고?

금융사 이익·생존 위해 합종연횡  
KB국민카드, 삼성페이 카드 출시  
KEB하나는 송금앱 '토스'와 제휴

최근 금융계에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合從連衡)의 움직임이 뜨겁다. 합종연횡은 '서로의 이익이나 노선에 따라 결집하는 것'을 가리키는 고사성어. 이 말처럼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이익이 된다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라는 것을 보여주듯 파격적인 제휴가 잇따르고 있다.

### ●우리카드 썼는데 롯데 엘포인트 적립이?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카드사들의 포인트 제휴다. 우리카드 '카드의정석 엘포인트'가 대표적. 우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금융계열 포인트인 위비꿀머니가 아닌 롯데그룹의 통합 멤버십 엘 포인트가 쌓인다. 롯데 엘포인트는 유통, 영화, 외식, 놀이동산 등 롯데 계열사를 통해 사용처가 다양한 것이 장점이다. 롯데멤버십 앱을 통해 위비꿀머니를 엘포인트로 교환하는 고객 배려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게 우리카드 측 설명이다. 롯데가 엘포인트를 계열사 외에 탑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인트 교환을 통해 새로운 고객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나카드 역시 삼성페이 이용금액의 최대 2%를 삼성리워즈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삼성 리워즈 하나카드'를 출시했다. 삼성리워즈 포인트는 삼성페이 앱에서 사용 가능하고,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삼성페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리하다.



최근 금융권 트렌드로 생존을 위한 '합종연횡'이 뜨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와 비금융 간편결제 서비스의 협업도 늘고 있다. 왼쪽 사진은 강승하 롯데멤버십 대표이사(왼쪽)와 윤의연 우리카드 부사장이 업무 협약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위부터 삼성 리워즈 하나카드, 삼성페이 KB국민카드, 페이코 우리체크카드

### ●간편결제 서비스와 손잡은 카드사들

카드사와 비금융 간편결제 서비스의 협업도 늘고 있다. 그동안 신한FAN(신한카드), K-모션(KB국민카드), 하나1Q페이(하나카드), 우페이(우리카드) 등 은행마다 자체 앱 기반 결제 플랫폼을 운영했다면 지금은 간편결제 특화카드를 내세워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비금융 간편결제 플랫폼과의 협업을 나서고 있다.

비금융 간편결제 플랫폼 이용자가 금융계 카드사 플랫폼을 넘어선 현실을 인정하고 협업을 통해 시장 확장을 노린 것이다.

삼성페이를 결제 시 최대 15% 할인되는 '삼성페이 KB국민카드', 네이버페이 이용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카드 '네이버페이 탭탭'을 비롯해 '카카오페이 롯데카드', '페이코 우리체크카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 ●시중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만남도 '눈길'

KEB하나은행은 간편송금서비스 토스와 제휴를 맺었다. 시중은행이 핀테크 업체와 협업에 나선 것. 현재 토스에서는 온라인 전용 자유입출금 통장인 KEB하나은행 e-플러스 통장을 만들 수 있고, 토스에서



이외에 현대카드와 신한은행과의 협업도 화제다. 저렴한 수수료가 특징인 현대카드 해외송금 서비스에 접수된 송금 신청을 신한은행과 영국계 핀테크 업체 커먼시 클라우드가 진행하는 방식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케이뱅크, 손바닥 뱅킹 서비스 개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손바닥 정맥으로 본인인증을 해 입출금·이체를 할 수 있는 손바닥 뱅킹 서비스(사진)를 시작했다. 전국 GS25 편의점 중 바이오인증 기능이 있는 1700여 대 스마트ATM에서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 앱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고 GS25 스마트ATM에 본인 손바닥 정맥을 등록하면 된다. 한 번 등록하면 카드나 휴대전화 없이 손바닥과 비밀번호만으로 거래할 수 있다.

### 삼성카드, 착한가게 지원 업무협약

삼성카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착한가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착한가게'는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소소형 가게다. 삼성카드는 링크 비즈파트너 서비스를 통해 착한가게 1000곳의 홍보를 돕고 3개월 간 판촉비용을 지원한다. 링크 비즈파트너는 가맹점주가 고객에 제공할 혜택을 등록하면 삼성카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찾아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하는 서비스다.

편집 | 김태건 기자 bong82@donga.com

## 1억명 계좌 無... '블루오션' 인니를 잡아라!

### 시중은행, 인도네시아 진출 경쟁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최국인 인도네시아가 국내 금융산업 해외진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약 2억6000만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다. 그런데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억 명 가량이 은행 예금 계좌가 없다. 그만큼 금융산업의 잠재 성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금융산업 대외화를 위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입 규제를 완화했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현지법인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은 현재 60여 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최근 현지 금융전문지 인베스터로부터 최우수 은행 1위에 선정되는 등 현지영업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현지법인 신한인도네시아은행 60개 점포를 통해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서 금융서비스를 하고 있다. 최근 자

산 10조5000억 루피아(약 8043억원)를 달성하면서 현지 금융 전문지 인포뱅크 매거진의 2018 은행평가에서 자산규모 10조 루피아 그룹의 최우수은행으로 선정됐다.

또한 KB국민은행은 7월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의 지분 22%를 취득해 2대 주주 지위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주택금융을 비롯 소매금융, 디지털뱅킹 및 리스크관리 부문 등의 역량 이점을 통해 부코핀 은행의 가치 증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금융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시중은행들의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화수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왼쪽)과 파우지 이치산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 대표가 2018 최우수 은행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KEB하나은행

## BLACK FACE 8월 한달 초특가세일! 놓치면 후회!

**블랙페이스 초특가 8월 할인행사!**  
**절대 답답해서는 안됩니다!**

고급원단을 사용하여 신축성이 좋고 우수한 통기성과 빠른 땀 흡수로 악취발생을 억제 줍니다. 남성 중요부위를 분리하여 답답하거나 불편하지 않아 입는동안 상쾌한 기분을 유지시켜 주는 매력적인 기능성 팬티입니다.

**센스와 패션을 아는 남성들이 선택하는 고기능성 위생팬티**

블랙페이스 고급형 기능성 팬티-5종 ※ 행사기간: ~8월31일까지

블랙페이스 프리미엄 기능성 팬티-5종 ※ 행사기간: ~8월31일까지

**내 소중한남자를 위한 FOR MY DEAR MAN BLACK FACE 블랙페이스 팬티**

**특허받은 3D입체절개! 블랙페이스 팬티!**

건강과 위생을 위한 블랙페이스 기능성팬티  
**이런분들 주목!! 실감하고, 체험하고 반응하라!!**

✓ 고급형 팬티5종 : **39,800원**  
✓ 프리미엄 팬티5종 : **49,800원** **색상랜덤발송됩니다.**

사이즈 : 95, 100, 105, 110 ※ 행사기간: ~8월31일까지

**SATISFACTION GUARANTEE 100%**

※ 24시간주문가능 ※ 모임단체주문환영합니다. **1899-1898** (기업) 104-091520-01-015 예금주 한국 뉴 미디어 2개월~5개월 무이자카드결제가능 전국 어디서나 3000원 우체국배송